

集合行動의 理論的 争點들에 관한 比較研究

- 概念, 發生要因, 形成過程을 중심으로 -

鄭 大 然

〈目 次〉

- | | |
|-----------------|----------------|
| I. 序 : 研究目的 | IV. 集合行動의 形成過程 |
| II. 集合行動의 概念 | V. 要約 및 結論 |
| III. 集合行動의 發生要因 | |

I. 序 : 研究目的

社會學의 基本적 관심의 대상이 인간의 社會的 行爲라면, 이것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E. Durkheim의 개념도식인 社會的 事實(social fact)을 근거로 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M. Weber의 개념도식인 主觀的으로 思念된 개인적 動機의 이해를 근거로 하는 접근이다. 前者는 특정의 社會구조 속에서 대다수의 成員들로부터 外형적으로 관찰 가능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유형화 되어있는 行爲에 초점을 둔다. 반면 後者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일어나는 개별적 行爲를 動機의 측면에서 因果的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前者가 巨視的 觀點이라면, 後者는 微視的 觀點이다. 主觀的으로 思念된 動機도 社會的 事實의 內面化를 근거로 하고있다는 전제가 타당하다면,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던 인간의 社會的 行爲의 體系는 규범 준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社會성 員들이 규범에 준해 행동하지는 않는다. 비규범적 이고, 비정상적 이고, 기존의 규범이나 社會체제에 도전적인 行爲들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行爲는 전통적인 조직에서 규범의 制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行爲이기에 일탈적 行爲로 규정된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가 규범적 行爲이고, 어느 선까지가 비규범적 일탈행위 이냐의 구분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규범준수-규범일탈의 의미는 兩分論的 立場보다는 連續體論的 立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일탈적 行爲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수의 成員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개될 때 일반

적으로 이것을 集合行動(collective behavior)이라 定義한다. 1) 이 집합행동을 전개하는 성원들의 행동유형의 특성, 동기, 목적 등에 따라 그 종류는 군중(crowd), 공중(public), 대중(mass), 유언비어(rumor), 사회운동(social movement), 폭동(riot), 열광적 유행(craze), 일시적 유행(fad), 테러(terror), 공황(panic), 재앙(disaster)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 총괄적으로 集合行動이라 부른다.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는 1895년 G. LeBon의 군중심리(La Foule)라는 저서에서 최초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된 후 2), 오늘에 이르기까지 심리학, 사회학, 사회 심리학, 기타의 행동과학의 주요한 관심영역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3) 그러나 집합행동에 대한 이해는 관심의 초점과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합행동에 관한 기존의 관심의 초점과 이론적 접근들을 고찰함으로써 집합행동의 개념, 발생요인,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을 비교 검토하고, 집합행동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集合行動의 概念

概念이란 일정한 존재를 지시하는 意味體로서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때문에 개념은 그 존재와 일치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하며, 구성요소 자체가 독자적이어야 하고 또한 분명하여야 한다. 4) 특정의 존재는 여러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은 인식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인식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인식이 가능한 구성요소들 가운데서도 어느 요소를 중시하며, 중시된 요소들 간의 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集合行動도 하나의 존재이기에 그것의 개념도 위와같은 맥락을 근거로 定義될 수 있다. 그러나 집합행동의 개념은 그것의 이해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매우 다양했다. R.H. Turner 에 의하면, 집합행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종합하면 크게 다음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

- 1) 집합행동은 기존의 규범적 행위에서 벗어난 다수 성원에 의한 집단적 행동이라는 점은 R.R.Evans, H.Blumer, R.H.Turner, K.Lang & G.Lang, N.J.Smelser 등 모든 집합행동 이론가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다.
- 2) 金炳梓, 社会心理学, 經文社, 1981, p. 452.
- 3) R.R.Evans, "Theoretical Viewpoints in Collective Behavior," R.R.Evans(ed), Readings in Collective Behavior, Chicago: Rand McNally & Co., 1969, pp.1-20
- 4) 金光雄, 社会科学 研究 方法論, 博英社, 1976, pp.74-75.

다. 5)

- ① 개인은 집단의 지배력 하에 들어가지만 지나치게 권력적인 세력을 당면하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갖고 행동한다는 관점.
- ② 집합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관점.
- ③ 집합행동의 성원들은 전통, 문화, 상징 등이 없다는 관점.
- ④ 집합행동도 일종의 제도화 되고 조직화된 행동이라는 관점.

R.H. Turner의 이 분류는 집합행동에 관한 종합적 차원에서 기존의 이론적 쟁점들의 차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집합행동의 개념의 구성요소의 차원에서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유용성이 거의 없다. 때문에 이전의 학자들이 明示的으로 제시한 집합행동의 개념의 구성요소들을 음미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집합행동의 개념에 대한 관심의 쟁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G. Le Bon은 집합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보다는 群衆(crowd)의 심리적 특성의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6) S. Freud는 G. Le Bon의 군중의 심리적 성격에 관한 묘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의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7) 이외 집합행동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주요 학자들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R.H. Turner : “기존사회의 규범과 조직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규범과 조직을 자발적으로 발달시키려는 집단적 행위로서 集團心(groupmind), 긴장, 기존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의 특징이 있다.” 8)

S. Milgram & H. Toch :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비교적 조직화 되지않고, 전개과정에 있어서 무계획적 이고 또한 예측 불가능 하며, 성원들 간의 상호 자극에 의해 좌우되는 집단적 행위” 9)

R.R. Evans : “일상적인 협동적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 행동에서 벗어난 특수한 행동.” 10)

H. Blumer : “성원들 간에 공통의 기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집합적 활동(collective activity)으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함께 행동하고, 분업이 있으며,

5) R.H. Turner, "Collective Behavior," R.E.L. Faris(ed),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Chicago: Rand McNally & Co., 1964, Chapter 11, pp.382-425.

6) G. Le Bon, "The Mind of Crowds," R.R. Evans(ed.), op.cit., pp.27-38을 참조 하시오.

7) 金炳粹, op.cit., p.454.

8) R.H. Turner, op.cit., pp. 382-425.

9) S. Milgram & H. Toch, "Collective Behavior: Crowds and Social Movements," G. Lindzey & E. Aronson(ed.),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4,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nc., 1968, pp.507-610.

10) R.R. Evans, "Theoretical Viewpoints in Collective Behavior," R.R. Evans(ed.), op.cit., pp.1-20.

어떤 적합성을 갖고있는 행동” 11)

R.W. Brown : 동질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군중들이 보편성에 대한 인상의 원리 (Principle of impression of universality)와 익명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 12)

K.Lang & G.E.Lang : 조직화 되지않고 또한 사회구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비구조화 된 유형의 사회적 행위로서, 집단적 방어를 바탕으로 한 기존조직의 파괴와 변동을 위한 문제해결의 활동이다. 그 특징으로서는 일시성과 변덕성이다” 13)

N.J. Smelser : “사회적 행위의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몇가지 긴장을 수정하기 위한 행위를 비제도화 된 방법으로 동원하는 것” 14)

비록 제한된 몇몇 학자들을 근거로 했지만, 집합행동에 대한 위의 개념정의들에서 다음의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집합행동의 여러 유형 가운데 특히 군중, 사회운동, 폭동에 초점을 두고 집합행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 집합행동은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집합행동의 개념정의의 구성요소는 그것의 발생요인, 행동의 속성, 행동의 방향, 총괄적인 관심의 초점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가지 차원에서의 개념정의들은 학자 별로 다음과 같이 도표화 될 수 있다.

학자 이름	발생 요인	행동의 속성	행동의 방향	총괄적인 관심의 초점
S. Milgram & H. Toch	성원들 간의 자극	자발성, 비조직화, 예측 불가능성, 무계획성		규범적 조직행동과의 비교
R. R. Evans		비협동적 및 비정상적인 특수행동		일탈행동

11) H.Blumer, "Collective Behavior," R.E.Park(ed.) An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es & Nobles, 1939, pp.219-280.

12) R.W. Brown, "Mass Phenomena," R.R.Evans, "Theoretical Viewpoints in Collective Behavior," op. cit., pp.1-20에서 재인용.

13) K.Lang & G. E.Lang, "Collective Behavior,"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2, New York : MacMillan, pp. 556-565.

14) N.J.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p.8 .

H. Blumer	공통의 기대와 이해	자발성, 나름대로의 적합성, 분업을 바탕으로		일종의 조직행동
R.W. Brown	보편성에 대한 인상의 원리	익명성, 책임감의 결여		행동의 특징
K. Lang & G.E.Lang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의 재규정	집단적 방어, 일시성, 변덕성, 자발성	기존 조직의 파괴와 변동	행동의 특징과 목적
R.H. Turner	긴장, 상황의 재해석	자발성, 규범으로부터 이탈	기존사회의 규범과 조직에 반대, 새로운 규범과 조직의 창조	행동의 특징과 목적
N. J. Smelser	구조적 긴장	사회적 행위, 비제도화된 방법으로 동원	긴장의 수정	사회적 행위의 구성요소의 차원의 차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집합행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 다양성은 집합행동에 대한 총괄적인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어디에서 찾으며, 집합행동의 특징과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 야기된다.

Ⅲ. 集合行動의 發生要因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견해들은 앞서의 개념정의에서 부분적으로 명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집합행동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집합행동의 개념정의에 그것의 발생요인을 내포시키지 않은 학자들의 경우에는 개념정의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을 수 없다. 때문에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이해는 집합행동의 성격에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다시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집합행동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크게 다음의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¹⁵⁾

- ① 군중성원들 간에 감정, 태도, 행동 등이 무비판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현상.

15) R.H. Turner, op.cit., pp.382-425

② 군중성원들 사이에 같은 성향과 관심이 共有되는 현상.

③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집합행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는 현상.

R. H. Turner 는 집합행동의 성격에 관한 이 3 가지 관점을 각각 전염이론 (contagion theory), 수렴이론 (convergence theory), 규범생성 이론 (emergent norm theory) 라고 이름 붙였다. ¹⁶⁾ 이외에 N. J. Smelser 의 가치부가 이론 (value-added theory) 과 E. Goffman 의 상호작용 이론 (interaction theory) 이 추가될 수 있다.

전염이론에서는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사회적 불안 (social unrest) 으로 보고있다. 그 대표적 학자들로서는 Blumer, Trotter, Tarde, McDougall, LeBon, Freud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불안은 개인들의 행동을 집합의 행동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태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준비단계이다. 이 경우 개인적 불안이 집합행동을 유발시키게 되는 직접적 요인에 대해서 Blumer 는 순환적 반작용 (circular reaction) 이라고 제시했다. ¹⁷⁾ 이외에 Trotter 는 암시 (suggestion), Tarde 는 모방 (imitation), McDougall 은 원초적 동정 (primitive sympathy), LeBon 은 지도자 (leader), Freud 는 同一視 (identification) 라고 제시했다. ¹⁸⁾ 따라서 이들은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의도적이 아니라 충동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수렴이론은 사회 심리학의 학습이론 (learning theory) 에 근거하여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 학자들로서는 H. Cantril, C. C. Jung, J. A. M. Meerlo, J. Dollard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 속에 行動性向이 동시에 충분히 진전되면 집합행동이 형성된다. 이러한 집합행동적 행동성향은 학습과정이나 욕구불만의 경험 등에 의해 이루어 지고 적당한 사건을 계기로 행동으로 촉발된다는 관점이다. ¹⁹⁾ 따라서 이 입장은 사회 조직적인 요인을 긴장의 근원으로 혹은 인간집합의 획일적인 행동의 바탕으로 보고있는 관점이라 하겠다.

규범생성 이론은 새로운 행위를 뒷받침 해주는 집합규범 (collective norm) 이 형성되는 조건과 과정 그 자체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는다. ²⁰⁾ 그 대표적 학자들로서는 A. M. Lee, N. D. Humphrey, M. A. Sherif, S. E. Ash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집합적 규범의 생성조건은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3 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 ²¹⁾

16) Loc. cit.

17) H. Blumer, op. cit., pp. 219-280

18) R. H. Turner, op. cit., pp. 382-425

19) Loc. cit.

20) Loc. cit.

21) 金炳梓, op. cit., pp. 464-465

① 사회조직이 성원들의 행동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나 규범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경우 .

② 현재의 사회조직의 비능률적인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욕구가 증대되는 경우

③ 사회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질서가 폐지되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도전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실이 위의 조건들에 다시 첨가되는 경우.

이렇게 볼 때, 규범생성 이론은 새로운 집합규범을 유발시켜 주는 사회조직의 조건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는다고 하겠다.

E.Goffman의 상호작용 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이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리고 상호작용 당사자들의 상황해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정 사건의 발생이 집합행동 발생의 원초적 요인이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 (face - to - face interaction) 혹은 유동적 상호작용 (fluid interaction)을 통해 집합행동은 더욱 농도가 짙어진다. ²²⁾

N. J. Smelser의 가치부가 이론에 의하면, ²³⁾ 집합행동의 원초적 발생요인은 사회의 구조적 유인성 (structural conduciveness)이다. 구조적 유인성은 집합행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때문에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앞서의 전염이론, 수렴이론, 규범생성 이론, 상호작용 이론 등에서 제시된 요인들보다 구조적 유인성이 더 先行條件이다라는 관점이 Smelser의 전제라고 하겠다.

IV. 集合行動의 形成過程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일단 발생된 집합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체화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한 논쟁들은 크게 심리학적 접근, 사회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심리학적 접근이란 집합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으면서 모든 개념을 조직화 시키는 입장을 의미한다. ²⁴⁾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과정과 메카니즘을 강조하는 입장을 뜻한다. ²⁵⁾ 그리고 사회학적

22) E.Goffman, Behavior in Public Places, New York: Free Press, 1963, p.17.

23) N.J.Smelser, op.cit., p.15.

24) N.J.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1968, 박 영신 옮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經文社, 1981, p.95.

25) 金瓊東, 現代의 社会学, 博英社, 1978, p.506.

접근이란 사회체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집합행동을 해석하는 입장을 뜻한다.²⁶⁾ 심리학적 접근의 대표적 학자들로서는 G.LeBon과 S.Freud를, 사회 심리학적 접근의 대표적 학자들로서는 H.Blumer와 E.Goffman을,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의 대표적 학자로서는 N.J.Smelser를 들 수 있다.

G.LeBon은²⁷⁾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을 군중의 心性(mind of crowd)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면서 군중의 心性을 정신적 통일법칙(law of mental un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군중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지만 이 집합체 속의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은 사라지고 그 집단성원 전체의 感性和 思考를 획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共同心理가 형성되어 이것은 군중의 정신적 통일법칙에 준해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知的 능력은 약화되고, 개인들 사이의 이질성은 동질적인 것에 의해 압도되며, 개인들의 무의식적인 성질이 우세해진다. 군중의 이러한 정신적 통일법칙의 형성은 군중이 갖고있는 충동성, 흥분성, 推理의 무능력, 비판력의 결여, 感性的 과장 등에 의거하고 있다.

S.Freud는²⁸⁾ G.LeBon의 관점을 대체적으로 동조하고 있지만 군중의 형성과정의 설명을 인간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욕구의 표출에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정신적 상부구조(mental superstructure)의 발달은 개인들 사이에 서로 다르지만 집합행동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소멸되고, 누구에게나 유사한 무의식의 기초가 나타나고, 개인들 간의 결속은 리비도(libido)적인 연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리비도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개인들은 자신의 초자아(superego)를 포기하고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며, 그 지도자와 同一視(iden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 집합행동이 형성된다. 이 과정은 일종의 최면상태이며, 이 최면적 영향력을 통해 지도자는 개개 성원들의 理想我(ego-ideal)를 대리하며,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지도자 밑에서 서로 유대의식을 갖게된다.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에 관한 사회 심리학적 설명을 제시한 H.Blumer에 의하면²⁹⁾,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순환적 반작용(circular reaction)의 상호작용이 집합행동 형성의 기본적 메카니즘이다. 이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밀고 부딪치기(milling)→ 집합적 흥분(collective excitement)→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 자발적 행동의 단계(stage of spontaneous behavior)를 거쳐 집합행동이 형성된다.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의 첫 단계인 “밀고 부딪치기(milling)”는 어떤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26) N.J.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박 영신 옮김, op.cit., p.95.

27) G.LeBon, “The Mind of Crowds,” R.R.Evans(ed.), op.cit., pp.27-38.

28) S.Freud,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London: Hogarth Press, 1922, 金炳粹, op.cit., pp.454-455에서 재인용.

29) H.Blumer, op.cit., pp.382-425.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애매한 느낌이 팽배할 때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몰려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기에 집착되어 일정한 곳이나 표적없이 이리저리 밀치고 부딪친다. 이렇게 자극된 감정과 흥분이 점점 더 번져나가 보다 강렬한 상태로 되는 것이 집합적 흥분이다. 이 집합적 흥분이 강렬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사회적 전염이 일어난다. 이 사회적 전염이 형성되면 성원들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통일의 형태를 띠는 집합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처럼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을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 심리적 과정과 메카니즘을 강조하는 또 다른 견해로서 E.Goffman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집합행동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는 달리 대면적(face-to-face)이라는 점과 유동적(fluid)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³⁰⁾ 이 두 가지 특징의 상호작용은 不適切性의 法則(rules of irrelevance)과 變形의 法則(transformation rule)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집합행동을 형성시킨다.³¹⁾ 前者는 특정 집합의 상황 속에서 관심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상황에 대한 定義를 명백히 해 줌으로써 성원들을 동질화 시킨다. 반면, 后者는 관심의 대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성원들의 심리적 현상(psychological reality)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으면 이것들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사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법칙이다.

마지막으로,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을 가치부가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N.J.Smelser는 사회구조의 조건에서 설명을 시작한다. Smelser에 의하면, 집합행동은 구조적 유인성(structural conducivenss)→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일반화된 신념(generalized belief)→촉진요인들(precipitating factors)→행동을 위한 참여자들의 동원화(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사회통제의 작용(operation of social control)이라는 6가지 단계의 가치부가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³²⁾

“구조적 유인성”이란 어떤 집합행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사회 구조적 先行條件을 뜻한다. “구조적 긴장”이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의 박탈, 갈등, 분명하지 못한 상황 또는 규범과 가치관념 사이에 모순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화된 신념”이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위한 의미체계의 정립을 뜻한다. “촉진요인”이란 어떤 현실적 사건을 자극시켜 주는 사태의 유발을 뜻하고, “행동을 위한 참여자들의 동원화”란 일반화된 신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것을 의미

30) E.Goffman, op.cit., p.17.

31) E.Goffman, Encounters, Indianapolis: Bobbs-Merril, 1961, p.19.

32) N.J.Smelser,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pp.15-18.

한다. “사회통제의 작용”이란 집합행동을 방지, 방해, 금지, 억제하려는 反決定 要因(counter-determinant)으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으로서 사회통제기관들의 개입을 뜻한다.

V. 要約 및 結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같이, 집합행동의 개념, 발생요인, 형성과정에 관한 관점들은 집합행동에 관한 관심의 초점과 접근방법에 따라 매우 달랐다.

집합행동의 개념은 그것의 발생요인, 행동의 속성, 행동의 방향, 집합행동에 대한 총괄적인 관심의 초점 등 4가지 차원에서 정의되었다. 따라서 집합행동의 개념은 그것의 발생요인을 어디에서 찾고, 행동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며 행동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4가지 차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라 비제도화 된 일탈행동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조직행동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은 전염이론, 수렴이론 규범생성 이론, 상호작용이론, 가치부가 이론 등 5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전염이론은 집합행동의 근원적 발생요인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불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불안은 아직 집단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적 불안이 어떻게 집단적인 것으로 되느냐가 집합행동의 직접적인 발생요인으로 본다. 때문에 이 관점은 순환적 반작용, 암시, 모방, 원초적 동정, 지도자의 영향, 성원들이 지도자에게 갖는 同一視 등이 의도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충동적 차원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 이라고 보고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수렴이론은 사회 조직적인 요인을 긴장의 근원으로 혹은 인간집합의 확실적인 행동의 바탕으로 봄으로써 성원들의 마음 속에 있는 行動性向의 성숙을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생성 이론은 새로운 행위를 뒷받침 해주는 집합규범이 형성되는 조건과 과정 그 자체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음으로써 사회조직의 조건을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으로 본다고 하겠다.

상호작용 이론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 집합행동 발생의 원초적 요인이지만 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집합행동화 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집합행동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치부가 이론은 사회의 구조적 유인성이 집합행동 발생의 가장 先行條件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볼 때, 가치부가 이론과 규범생성 이론은 구조적 차원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고 있고 전염이론과 상호작용 이론은 성원들 사이의 혹은 성원들과 지도자 사이의 인지적 차원에

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고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수렴이론은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여 성원들 사이에 (혹은 성원들과 지도자 사이에) 충분히 인지적 성숙이 형성된 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차원에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을 찾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집합행동의 발생요인에 관한 5가지의 이론적 쟁점들은 구조-인지-행동이라는 연속적 맥락속에서 어느 부문에 설명의 초점을 두고있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은 심리학적 관점, 사회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체제는 매우 달랐다. 심리학적 관점의 G.LeBon 과 S. Freud, 사회 심리학적 관점의 H.Blumer 와 E.Goffman,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의 N.J.Smelser 의 이론은 각각 다음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LeBon : 군중의 정신적 통일법칙의 형성→집합행동

Freud : 무의식의 욕구표출→성원들 사이에 리비도(libido)적 연대형성→초자아(super-ego)의 포기→지도자와 自我의 同一視→집합행동

Blumer : 밀고 부딪치기(milling)→집합적 흥분→사회적 전염→자발적 행동의 형성→집합행동.

Goffman: 사회적 불안→對面的 혹은 유동적 상호작용의 형성→不適切性的의 法則 및 變形的의 法則의 형성→집합행동

Smelser: 구조적 유인성→구조적 긴장→일반화 된 신념의 형성→촉진요인의 발생→행동을 위한 참여자들의 동원화→사회 통제의 작용→집합행동

위의 도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될 수 있다. 즉, LeBon 과 Freud는 개인들이 왜 집합행동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Blumer 와 Goffman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사회적 메카니즘에, 그리고 Smelser는 사회구조라는 환경적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집합행동의 형성과정에 관한 이 3가지 관점들-개인적 참여동기, 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사회적 메카니즘,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연속선상의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합행동에 개인의 참여동기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의해 내면화 된 것이고, 이 내면화의 틀에 의해 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이 유형화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집합행동의 개념, 발생요인,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은 결국 개인의 내면적 심리,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메카니즘, 구조적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이라는 3가지의 불가분의 차원 가운데 설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심리체제와 사회체제의 연구는 동일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서로 다른 추론에 기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³³⁾는 견해가 타당하다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문제는 심리적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 사회 심리적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 각각을 어떻게 종합하여 하나의 준거틀 내에서 집합행동을 설명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33) N.J. Smelser, *Essays in Sociological Explanation*, 1968, 박영신 옮김, op.cit., p.95.

— Summary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eoretical Issues of Collective Behavior
—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Concept, Cause, and Formation Process —**

by Dai-Yeun, Jeong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collective behavior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the behavioral science such as sociology,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etc. However, it is also another thing that the understandings of the collective behavior have been different depending on the approach to i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c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llective behavior, examining and comparing the theoretical issues of its concept, cause, and formation process.

1. On the Concept of Collective Behavior

The concept of collective behavior can be defined on the basis of four dimensions—its cause, attributes of behavior, direction of behavior, and all-inclusive perspective on the collective behavior. This illustrates that the concept of collective behavior is defined as an uninstitutionalized deviant behavior or an organized norm-obeying behavior in its own way, depending on the way of forming the relation between four dimensions.

2. On the Cause of Collective Behavior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cause of collective behavior are possibly divided into five perspectives—contagion theory, convergence theory, emergent norm theory, interaction theory, and value-added theory.

It was found that the contagion theory suggested the social unrest as the major source of causing collective behavior. However, according to the contagion theory, the social unrest the individuals feel is not taken as the primary cause of collective behavior, because it is not on the collective basis among the members. Therefore, the contagion theory focuses the process of individual person's social unrest being transformed into collective basis. This means that the contagion theory considers the factors making this process as the primary causes of collective behavior. As the result, the causes of collective behavior adapted by contagion theory are the circular reaction, suggestions, imitation, primitive sympathy, leader, or identification of members with leader, etc. It is another thing to be mentioned that the contagion theory concludes that these factors are come into existence from an impulse action rather than from an intended one.

By contrast, the convergence theory put emphasis on the full growth of action orientation of members as the factor causing collective behavior.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full growth of action orientation is caused by the social organization. That is, the action of members becomes uniform when the existing social organization is problematic.

The emergent norm theory focuses the condition and the process itself of the collective norm formation supporting a new action. This perspective demonstrates that the condition of social

organization is the major factor to bring about the collective norm formation.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theory, the occurrence of a particular event is the primary factor causing the collective behavior. However, the occurrence of event itself is meaningless because the collective behavior is seldomly formed without the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This make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nteraction theory puts emphasis on the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rather than the particular event itself.

The value-added theory takes the structural conduciveness as the essential prerequisite. The reason is drawn from the fact that the factors suggested by other theories are meaningless without the essential prerequisit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value-added theory and the emergent norm theory make a considerable point of the structural dimension, while the contagion theory and the interaction theory emphasize the cognitive dimension between leader and members or among members. Finally, the convergence theory tends to attribute the cause of collective behavior to behavioral dimension which appears after the growth of cognition with the structure for a background. Therefore, it might be concluded that the theoretical issues of factors causing collective behavior are under structure-cognition-behavior which is a continual context. The difference is which dimension of the context is emphasized.

3. On the Formation Process of Collective Behavior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collective behavior are possib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psychological, soci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Their explanatory systems were based on very different perspective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ized schemata of formation process of collective behavior suggested by the representatives of each perspective.

- G. LeBon : formation of law of mental unity → formation of common psychological state → outburst of collective behavior.
- S. Freud : expression of unconscious desire → formation of libidinous solidarity among members → abandonment of super-ego → identification of members with leader → outburst of collective behavior.
- H. Blumer : milling → collective excitement → soci contagion → formation of spontaneous behavior → outburst of collective behavior.
- E. Goffman : social unrest → formation of face-to-face or fluid interaction → formation of rules of irrelevance or transformation rule → outburst of collective behavior.
- N.J. Smelser : structural conduciveness → structural strain → generalized belief → precipitation factors → 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 → operation of social control → outburst of collective behavior.

The following comments might be given from the above schemata. The schemata suggested by Lebon and Freud are commonly focussed on why the members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behavior, while Blumer and Goffman make a point of the social mechanism of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By contrast, Smelser's model is based initially on the reaction of the members to the social structure which is considered to be an external environment. This conclusion draws that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collective behavior are under the three

dimensions — motive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behavior, social mechanism of interaction among the members, and reaction to the social structural environment. These dimensions are also under the same continual context. Because the motives of participation is the result of internalization by the social structural condition, and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can be said to be patterned by the frame of internalization of motives.

To conclude, the theoretical issues of collective behavior in terms of its concept, cause, and formation process are only the differences of explanatory foci among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 member's internal psychology, interactional mechanism among members, reaction of members to the social structural condition. This conclusion might be more persuasive if it is valid that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system are only different inference on the same data. The matter of prime importance would be how to explain the collective behavior within a framework, putting all significant accounts together from the psychological,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the sociological.